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AIG, 일본 생보사업 완전 철수 전망

- 미국 대형 보험그룹인 AIG는 일본 내 생명보험자회사인 아리코재팬을 메트라이프에 매각한데 이어, 또 다른 자회사인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을 푸르덴셜에 매각하기로 하는 등 일본 생명보험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, AIG는 3개의 일본 생명보험 자회사 중에서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 매각을 위해 푸르덴셜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, 매각금액은 약 40~50억 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함.
- 현재 최종 조율만 남은 메트라이프와의 아리코재팬 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(약 155억 달러에 매각될 예정)되면 AIG는 일본 내 자회사를 모두 매각함으로써 일본 보험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됨.
- AIG는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일본, 대만 등 다수의 해외 생명보험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AIA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상환자금 확보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음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액의 공적자금을 받은 바 있는 AIG가 정부에 상환해야 할 자금의 잔액은 6월 말 현재 약 1,012억 달러에 달함.
- AIG는 일본 자회사 매각 외에도 대만 자회사 남산생명 매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15개국에서 생명보험사업을 전개 중인 AIA의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최대 15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일부에서는 이번 일본 자회사 매각이 상환자금 마련 목적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사업을 제외한 자산운용사업 및 해외생명보험사업 부문을 대부분 매각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꾀하는 AIG의 경영전략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
(일본경제신문, 9/27)